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도미에(Honoré Victorin Daumier),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네덜란드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복음 환호송)

[제1독서]..... 민수 11,25-29

[제2독서]..... 야고 5,1-6

[화답송] 시편 19(18),8.10.12-13.14
(◎ 9ㄱ)

[복음 환호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알렐루야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복음] 마르 9,38-43.45.47-4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2] 천지 생기기 전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성체성가: [500] 전능하신 주의 사랑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 파견성가: [446] 우리는 주의 사랑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그때에 ³⁸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³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⁴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⁴¹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⁴²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⁴³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⁴⁵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⁴⁷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⁴⁸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At that time, John said to Jesus,

“Teacher, we saw someone driving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tried to prevent him because he does not follow us.”

Jesus replied, “Do not prevent him.

There is no one who performs a mighty deed in my name who can at the same time speak ill of me. For whoever is not against us is for us.

Anyone who gives you a cup of water to drink because you belong to Christ, amen, I say to you, will surely not lose his reward.

Whoever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a great millstone were put around his neck and he were thrown into the sea.

If your hand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into life maimed than with two hands to go into Gehenna, into the unquenchable fire. And if your foot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into life crippled than with two feet to be thrown into Gehenna.

And if your eye causes you to sin, pluck it out. Better for you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with one eye than with two eyes to be thrown into Gehenna, where their worm does not die,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예수님 말씀은 더 큰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그 원인을 먼저 없애라는 뜻입니다. 사실 별다른 의식 없이 작은 죄를 무심코 계속 저지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악을 피하며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베푸는 물 한 잔도 귀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었는가? 너는 나에게 늘 무엇을 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지만, 너는 나를 위해 땀 흘려 보았느냐?” 우리는 극심한 시련이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주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주님께 받은 은총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 적은 있는지, 내가 가진 재능을 아낌없이 바친 적은 있는지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몸담은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교회의 미래, 그리고 지금”



찬미예수님!
사랑합니다!

방명준 라우렌시오 보좌 신부

순교자 성월도 어느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문득 책상 앞에 걸려있는 달력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삶을 떠올려봅니다. 떠나면서까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남기고 가신 무명 순교자들. 그분의 이름보다는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괜스레 고개가 숙여집니다.

또한 달력에 쓰여 있는 교황 요한 23세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내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목적을 위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주는 과정 안에 이미 ‘기쁨’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우리들은 ‘인내심’이 참으로 부족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조금만 더 참아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을까요?” 고민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2015년, ‘홍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 100명 중 56명 가량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은 56%, 중학생은 39%, 초등학생은 17%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답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도덕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2013년에는 고등학생 47%, 중학생 33%, 초등학생 16%가 ‘괜찮다’고 했고, 2012년에는 고등학생 44%, 중학생 28%, 초등학생 12%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과 아이들은 정직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우리 아이들을 말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조금은 힘이 빠지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고등학생 100명 중 56명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답했다면, 나머지 44명의 아이들은 10억을 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는 중학생 61명, 초등학생 8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을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10억을 쥐도, 아니 아무리 더 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올 해부터 청년들과 함께 대학교 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년들이 준비한 피정에 대학생들을 초대했지만, 몇 명 오지 않아서, 그럼 올 해에는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보자는 지향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학교 방문을 갔을 때, 두 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보통 주일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친구 모두 미국 성당에 다니며,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개신교는 공동체도 크고, 사람도 많고, 또 훨씬 재밌을 텐데, 그쪽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어요?”

이에 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깊은 할머니와 또 그 밑에서 신앙심을 키워온 부모님과 함께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중간에 주일학교는 잠깐 쉬었지만, 늘 부모님과 함께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주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대학생이 된 자녀들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성당에까지 가면서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 준 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인내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 재미가 덜하더라도
더 의미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쁜 것은 금방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좋은 것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더 재밌는 것이 생길 때 쉽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억을 쥐도 바꾸지 않는, 또 아무리 재미있어도 더 의미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하늘의 문 꼬미시움, 연례 행사 · 홍보 활동



레지오 마리아 하늘의 문 꼬미시움은 지난 9월 23일(일) 연례행사인 야외 행사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신자들에게 성모님의 군대이자 평신도 사도직인 레지오 마리아를 홍보하고, 본당 꼬미시움 산하 40개 뿌레시디움은 일 년에 한 번 기도로 함께 해준 협조단원에게 감사하며 친목을 다지는 이번 행사는 비 때문에 급히 성당 친교실로 옮겨 진행되었음에도 총 324명의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이 참여했다.

레지오 마리아 지도신부인 백인현 주임신부는 인사말에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으니

다시금 가족과 같은 끈끈한 정으로 뭉쳐 하나된 모습으로 성모님과 함께 봉사하는 레지오 마리아가 되기를 바란다” 며 격려하고 함께 묵주기도를 바친 후 각 뿌레시디움에서 준비한 떡과 음식을 나누며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권태완(빈첸시오) 전임 꼬미시움 부단장의 진행과 김원중(세례자 요한) 형제의 반주 아래 각 뿌레시디움 단원들의 소개와 인사, 장기자랑이 있었으며 신임 부단장 탁한이(아오스당)의 선장으로 프랭크더프 형제 시복기도를 바침으로 총 세 시간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꾸르실료 야외 울뜨레야

성 정바오로 성당 꾸르실료 야외 울뜨레야가 9월 21일(금) Blue River Farm 에서 열렸다. 2박 3일에 걸친 야외 울뜨레야에서 40여 명의 꾸르실리스따들은 도심을 떠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회합의 시간을 가졌다.

서경원(마르티노) 간사는 평신도 사도직의 본분을 잊지 않고 성당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모든 꾸르실리스따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앞으로 있을 꾸르실료 행사 및 소식들을 전했다.

특별히 이번 야외 울뜨레야는 백인현 주임 신부가 방문해 특전미사를 집전하고 저녁도 함께 하며 꾸르실리스따들을 격려했다. 저녁식사 후엔 보물찾기와 풍선터트리기, 딱지치기와 윷놀이 등 다양한 게임과 선물을 나누며 깊어가는 가을과 더불어 꾸르실리스따 선후배간의 우애를 나눴다.



Korean Martyrs' Day Activity

September 23, 2018

This past Sunday, September 23, CCD held Korean Martyrs Day activity as a Memorial of St. Andrew Kim Tae-gon, St. Paul Chong Ha-sang, and Companions. Kindergarten thru 8th grade students filled out questionnaires while visiting various stations in the gym and learned more about the faithful life of these martyrs. It was an excellent learning experience to learn more about our Korean Catholic heritage and to honor all the Korean martyrs. Special thanks goes to CYO Seniors who kindly helped the younger students!



지난 주 주일학교 수업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과 추석 명절을 함께 연결시켜 한국 순교자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체육관에 올라가 전시된 순교 성인들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고 질문지에 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천주교리의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던 한국 초대교회인들은 집권층의 극심한 고문에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마음에 활활 타오르던 성령의 불길은 지금의 저희를 숙연하게 합니다. 성인들께서 자신의 목숨과 바꿔 이뤘던 천주교와 복음을 보다 널리 전파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순교성인의 후예인 우리들입니다.

황윤하 로마나, 8학년 교사

제가 맡은 주일학교 킨더 친구들은 아직 읽고 쓰기가 부족하여 제가 문제를 읽어주면 아이들이 순교자의 번호를 찾는 방식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순교란 조상님들처럼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는 어렵고 무서운 것이 아닌, 내 자리에서 하느님 뜻에 따라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순교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킨더 친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대답하더군요. **“나쁜 친구 용서해 줘요, 인사 잘 해요, 쓰레기 바닥에 안 버려요, 매일 예수님께 기도해요, 미사 때 이쁘게 잘 앉아 있어요, 미사 시간에 노래 크게 불러요.”** 우리 킨더반 친구들은 올 한 해도 사랑하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뜻에 따라 이렇게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다같이 약속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 또한 순교자 분들과 성인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예수님 뜻을 따라 저의 소중한 것도 내어 놓을 수 있는,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지은 글라라, 유치부 교사

CYO First practice for BRIDGE BOWL 2018

We are excited for CYO students to represent Saint Paul Chung at bridge bowl 2018! Our first practice ran well with a good turnout from the students. My goal as a coach and teacher is to help students become closer to each other as a team, under God's name.

The game will be in November and we are pumped to get practice rolling. We want to thank Parents and Father Bang for their continuing support!

Coach Moon, 11th grade teacher





"COME AND SEE"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VOCATION CONFERENCE 2018

SATURDAY, OCTOBER 6, 2018 |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Finding true happiness in Life" Sr. Susanna Myunghwa Chang 장명화 수녀

What did I truly wanted in my life? What are the uncompromisable values that I learned from the various experiences I was blessed in my life from my God? As I share my faithful journey, I hope we will be able to reflect the happiness in each one of our lives, and willingly and joyfully respond to God's calling with open mind.

Sr. Susanna Chang entered the Convent in Seoul, South Korea in 1999. She made her First vow in 2003, followed by Four years of formation periods. During 6 years of Junior period, she served God and his people, receiving precious experiences. With her Perpetual Vow at Seoul, South Korea in 2009, she was transferred to Region of Americas. Since then, Sister Susanna served at Korean parishes in Dallas, San Diego and Chicago. Currently, she is located in Los Angeles, serving UYKC (United Young Korean Catholic) and The Choice weekend, while helping out Young Adult Retreats and performing lectures.

안녕하세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 장명화 수산나 수녀입니다. 먼저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1999년 한국에서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2009년부터는 미주 지부 소속으로 옮겨 달라스, 샌디에고, 시카고에서 사도직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California LA 지부원에서 머물며 남가주 청년연합회인 UYKC(United Young Korean Catholic)에서 봉사하고 있고, 남가주 'The Choice weekend' 지도 수녀를 맡고 있으며, 본당 청년회의 요청을 받아 강의와 피정을 하고, 수도회 영성센터에서는 성경공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삶과 체험의 나눔을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 봉사하는 삶의 참 행복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 저의 성소 여정을 나누며 우리 각자의 행복한 삶을 생각해 보고 하느님께 자유롭게 기쁘게 응답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ANNOUNCEMENT

Upcoming Schedule for Confirmation

- 10/3 & 10/10 (Wed): **Family Interview** w/ Rev. Bang @7:30pm
- 10/17(Wed): **Sacrament of Penance** @7:30pm
- 10/21(Sun): **Rehearsal** @1pm
- 10/23(Tue): **Confirmation Mass** @7pm

Youth Liturgy Service News

Youth Liturgy Service is open to anyone attending Parish Sunday School from age group 6th-12th grades.



We are accepting application to join Youth Liturgy Service
Please contact **Mr. John Seok**

Email : aranghyunbin@gmail.com

Phone : 703-581-3719

*Appication Form :

본당 웹사이트 >성당 공동체>청소년부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인광고

보협회사 파트타임 구함 - 컴퓨터와 영어 가능하고 사무직 경험 있는 분.

문의 : (571)213-3304



"COME AND SEE"
John 1:39

Workshops are led by Korean priests and sisters in both Korean and English to help you grow a deeper faith through a proper understanding of vocations.
We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Questions? Contact:
Vocations Committee 703-403-1185

Sponsored by:
Office of Vocations
Office of Multicultural Ministries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SATURDAY,
OCTOBER 6, 2018

- 2:00pm - 2:15pm Registration
- 2:30pm - 6:00pm Sessions
- 6:30pm-7:00pm Dinner
- 7:30pm - Vigil Mass

FEATURING:



Fr. Inhyun Paik
백인원 신부



Fr. Jaehwa Lee
이재화 신부



Fr. Christopher Bae
배웅진 신부



Fr. Myungjun Bang
방명준 신부



Fr. Michael Isenberg
마이클 아이젠버그 신부



Sr. Sungha Park
박성하 수녀



Sr. Myunghwa Chang
장명화 수녀

1 주일학교 1학기 화재 대피 훈련

- 일시: 9월 30일(일) 오전 11:10 - 11:30
- 장소: 하상관과 하상관 주변 구역(하상관 지하 및 체육관 포함)
- 훈련 진행 중에는 하상관 출입이 금지됩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장례 절차 세미나 (연령회)

- 일시: 9월 30일(일) 오전 11:30(A-1,2)
- 내용: 장례절차와 연령회의 역할
- 강사: 홍익훈 요셉 연령회장
- 문의: 김진호 다니엘 (703)300-5420
- 세미나 시간 관계로 이날 시니어 아파트 셔틀버스는 오후 1시에 픽업합니다.

3 성정바로로 본당 승격 25주년 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9월 30일(일) 오후 1시
- 장소: South Riding Golf Club
- Green Fee : \$100 (점심, 저녁 포함)
- 문의: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 오늘 골프대회 관계로 우드브릿지 미사는 없습니다.

4 성당 묘지 구입(20%할인) 및 정리

- 일시: 10월 6일(토) 오전 11시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 문의: 홍익훈 요셉 (703)966-8206

5 병자 영성체

- 일시: 10월 5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264-0050

6 성체강복

- 일시: 10월 5일(금) 오후 7:30 미사 후

7 구역 임원교육

- 일시: 10월 7일(일) 오전 11:30(B-1,2)

8 청소년 사도 임원회의

- 일시: 10월 7일(일) 오후 1시(A-3,4)

9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10월 7일(일) 오후 1시(B-1)

10 2018 - 2019년도 주일학교 PTO 학부모 전체회의

- 일시: 10월 14일(일) 오전 11:30(A-1,2)
- 주일학교 PTO 전체회의에 학부모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최 세실리아 (703)606-7376

11 CYO Lock-In

- 일시: 10월 12일(금) 오후 6:30 - 10월 13일(토) 오전 9시(성당)
- 대상: 9학년 - 12학년(CYO 등록학생에 한함)
- 문의: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2 불우이웃 돕기 5K 뛰기 / 걷기 대회 (복지부 주최)

- 일시: 10월 20일(토) 오전 7:30 - 10시
- 장소: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10월 14일까지, 매 주일 8시, 10시, 11:40 미사 후 친교실, 성당 로비
- 신청비: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3명) \$30
- 도내이션도 받습니다.
- 신청비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문의: 김 소피아 (703)314-0905

13 제5기 성 요셉 아버지 학교

- 아버지 학교에 형제님들을 초대합니다.
- 주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아버지로서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 대상: 자녀를 둔 모든 아버지(나이 관계 없음)
- 일정: 11월 3일 - 11월 4일(1박 2일)
- 장소: Trinitarians Retreat Center Baltimore, MD 21208
- 참가 신청: 친교실(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최 마르티노 (703)470-6337
김 라파엘 (703)585-8380

14 성물부 정기세일 안내

-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성물부에서 세일을 하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성가 및 기도서도 있습니다.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오전 9시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합니다.

주일 미사(오전 8시, 10시) 미사곡 변경

- 자비송 : 320 • 대영광송 : 321
- 복음 환호송 : 366 • 거룩하시도다 : 322
- 주님의 기도 : 388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89
- 하늘님의 어린양 : 324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6주간 예즈 6-10, 사도 14**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4일(목) 오후 5:00-6:00
10월 5일(금) 오후 8:00-9:00
10월 7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강**: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2) 마리아 막달레나 -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유원진 비안네 신부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

선교: 수도자의 사명

봉헌된 남녀 수도자들이 힘을 내어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의 정성

2018년 9월 23일(연중 제25주일)

주일헌금	\$ 7,765.32
교무금	\$ 14,1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7,125.00
특별헌금	\$ 380.00
2차헌금	\$ 8,771.00
합계	\$ 38,151.32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균(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보(가타리), 오인균(바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고필순(젬마), 백명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범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관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이호현(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30일(일)	연중 제26주일	주일학교 화재 대피 훈련(오전 11:10), 장례절차 세미나(오전 11:30, A-1,2), 본당 승격 25주년 기금 마련 골프대회(오후 1시, South Riding Golf Club), 우드브릿지 미사 없음
10월 1일(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2일(화)	수호천사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3일(수)	연중 제26주간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바로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4일(목)	아시아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5일(금)	연중 제26주간	병자 영성체,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체강복(평일미사 후), CLC 모임(오후 8시), 회장단 회의(오후 8:10), 로고스 새신자 오리엔테이션(오후 7시)
6일(토)	연중 제26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동중부 한인 성소대회(오후 2시-7시), 파티마 첫토요 심신
10월 7일(일)	연중 제27주일	구역 임원교육(오전 11:30, B-1,2), 청소년 사도 임원회의(오후 1시, A-3,4),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 혼인공시

◆ 박원균씨 자: **박주만(라우렌시오)**

◆ 최승준씨 녀: **최아람(세실리아)**

• 일시: 10월 13일(토) 오후 4시

• 장소: 천주교 성 정 바로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마키엘) 703-881-1155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생인취미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예비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